

## 추도사

각현스님!

스님의 소식에 불자들은 할 말을 잃고 숙연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몸으로 행하신 일생의 헌신 앞에서, 사부대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멍멍한 하늘과 먼 산만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생전의 모습을 돌아보자니, 곳곳에 스님의 자취가 너무 많아 그만큼 아쉬워하여도 감당이 어려운 듯합니다.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시절인데도 복지에 투신하셨으니, 불교계 복지활동 어디를 보아도 그 첫발은 스님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부처님의 온기를 중생과 사회에 환원하여 연꽃으로 피우고자 하신 뜻은, 수행만으로 부족할지 모를 현대의 불법홍포를 일깨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불모의 시대에 일군 노인복지 개척과 복지기반 조성이기에, 스님의 자취는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께서서는 우리 종단 승려복지의 나아갈 길 또한 손수 조언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일생을 용맹정진하듯 일구신 모든 법인과 시설을 종단과 상의하여 운영하겠다는 뜻은, 소중한 공심의 발로였습니다. 종도는 물론 모든 불자는 귀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각현스님,

세상을 텃밭 삼아 뿌려놓으신 복지의 씨앗들이, 이제는 곳곳에 싹틔워 오르고 있습니다. 생생한 스님의 공덕과 덕화를 대하자니, 부끄럽게도 더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스님이 나누었던 너그러운 미소는 많은 이들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곳곳에 뿌려놓은 연꽃에 깃든 스님의 웃음을 보면서, 불자들은 더욱 분발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베품이라도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누구든 행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셨던 스님처럼, 후학들은 실천하는 불자들이 넘쳐나도록 정진을 거듭할 것입니다.

평생을 당신의 향기를 나누며 사셨던 각현스님!

나누고 나누어 주어도 항상 올곧이 채워졌던 그 향기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부디 열반상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어느새 재환하시어 스님의 연꽃향을 함께 누리소서.

불기2558년 12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